실직·생활고 비관 자살 잇따라

끝없는 불황 속 극단적 선택 빈발

광주·전남 일주일 새 하루 한명 꼴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직이나 생활고를 비관한 20~40대 청장년층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깊고 어두운 경제불황의 터널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D모텔 4층 객실에서 투숙객 박모(29)씨가 욕실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D모텔 주인 김모(3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객실에선 극약이 담겼던 빈 병이 발견됐다.

박씨는 1년 전까지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해왔으나 교통사고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박씨는 최근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상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는 가족 등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는 남구 월산동에 사는 이모(여·40)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6년 전부터 박씨와 동거해온 이씨는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엔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의 등록금 문제로 고민해 왔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아들의 학자금을 마련해 주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엔 북구 중흥동 최모(여·70)씨의 B모텔 객실에서 최씨의 아들 정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의 모 건설회사에서 일해온 정씨는 3년 전 실직을 당한 뒤 아내와 자녀를 두고 고향인 광주에 내려와 홀로 생활해 왔으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왔었다.

경찰은 정씨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왔다는 가족들 진술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2시20분께에도 북구 모 아파트에 사는 김모(28)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신혼인 김씨는 숨지기 전날 직장을 잃었으며 실직 사실을 부인(27)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2002~2006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3천2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이유 중 단연 1위는 우울증(염세 비관). 5년 동안 무려 1천222명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신병 비관 613명 ▲치정 및 배우자 부정 414명 ▲가정불화 263명 ▲사업실패 154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 자살예방협회 장창민 과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불황 속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쉽게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고 국가나 지자체도 자살을 공공의 문제로 접근, 상담창구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외출 땐 문단속 '꼭'

광주 아파트 빈집털이 기승

광주시 광산구 일대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8시30분께 광산구 신창동 B아파트 1층 장모(34)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과 금반지, 디지털카메라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범인은 베란다의 방범창을 부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무관심하고 1, 2층 베란다는 방범창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설 연휴 이후부터 최근까지 6가구가 빈집털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들은 아파트 1, 2층의 경우 밤 시간대 어둠을 틈타 베란다로 침입하고, 3층 이상은 주로 대낮에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등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일대 빈집털이가 마스크를 쓴 2인조 남성 절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김형호기자 khh@

김규장 변호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과로사 추정

부장판사 출신 김규장(사진·51)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김규장법률사무소에서 김 변호사가 소파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개업 후 1주일에 3~4일 야근하면서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으며, 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실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과로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사시 24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딘 뒤 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개업했으며 국회의원과 기업 총수 등이 관련된 굵직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 중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재임용 탈락 교수

광주고법 복직 판결

20년 전 학내 분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용교수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직 대학강사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구제를 받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조선대 전임강사 출신 박모(56)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 재임용 절차이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박씨에 대한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량권을 넘어 임용 대상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로 박씨가 2년간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만큼 대학측은 박씨에게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88년 조선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학내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어용교수로 낙인 찍힌 A교수를 옹호하고,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A교수의 추천으로 전임강사로 임용된 점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자녀와 함께 파래 수확 초봄 날씨를 보인 11일 해남군 송지면 선착장에서 부모의 파래 수확을 돕는 자녀들의 모습이 정겹다. 이날 해남은 평년 기온보다 8.2도 높은 15.6도를 기록했다.

/해남=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폭설 피해 보조금 수억원 부당 수령

농민 10명·공무원 등 조사

폭설 피해 규모를 부풀려 수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농민들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무더기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폭설 당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33개동의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조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농민 10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꾸며 농민들을 도왔다는 혐의로 고발된 당시 나주시청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지역은 2005년 발생한 폭설로 비닐하우스 1천182동과 축사 690곳, 주택 33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돼 82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20대 장애 여성 모텔서 피살

순천경찰, 40대 男 추적

20대 장애 여성이 모텔 방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순천시 조례동 한 모텔 방에서 김모(여·28)씨가 가방 끈에 목이 졸린 채 침대 밑에 숨져 있는 것을 이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부검 결과 경부압박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8일 오후 3시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투숙했으며 이 남자는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모텔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 방에 있던 음식과 담배 등을 수거해 지문과 유전자를 감식 중이며,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김씨가 채팅을 통해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이 남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고흥 해안가 40대 女 변사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고흥군 금산면 신양리 배천마을 앞 해안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진모씨(57)가 발견해 신고했다.

157㎝ 가량의 키에 단발머리를 한 이 여성은 보라색 셔츠와 검은색 모직 반코트, 보라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들어간 운동복 바지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공사장 조폭들 "우리 중장비 써라"

쌍나팔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이 알선한 중장비 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해 거액을 챙긴 목포지역 조직폭력배 2명이 경찰에 덜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자신들이 조직폭력단체에 속해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암군 갈마산 절개공사현장의 운송권을 빼앗은 뒤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김모(41)씨와 이모(51)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3개월간 이 현장의 시공사인 S업체 부사장 김모(50)씨를 협박해 덤프트럭 1대당 사용료 52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6천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김씨 등은 S업체가 덤프 트럭 부족으로 타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자 공사현장의 입구를 막는 등 시도때도 없이 조폭의 위력(?)을 과시.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완도(주)해진수산, 고금면(주)창진수산 자매업체
광어전문점 등대바다
※선물용 전복 판매!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춤추는 광어전문점
TEL. (062)682-9688
681-0112
대표 鄭一泳
등대바다
동부센트리빌
백운동
마재우체국
농산물센터
월드컵경기장
금호지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호남동	74/74	10억	4억4870만	단층/동광주세무소앞
우산동	727/1432	67억2820만	30억1430만	3층/지동차매장,점비업소
오차동	281/231	7억4940만	4억1960만	우산중인근,식품공장
나주남내동	290/82	5억4700만	3억630만	단층/대중음식점
오차동	50/52	1억6110만	9030만	2층/창고,사무실적합
수기동	50/103	4억2580만	2억3840만	3층/음식점,사무실적합
양산동	362/994	41억4000만	16억9600만	5층/금융,병,의원,학원적합
지석동	151/213	5억540만	2억8300만	2층/병,의원,적합,태양광기능

▶근린상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매월동	11	6200만	2220만	1층/공구상가
우산동	24.7	2억5200만	1억1290만	2층/콜롬버스내,편의점
풍암동	60.7	2억9200만	2억440만	2층/금호타운,학원,병,의원적합
동림동	183	4억5000만	1억2900만	지하/삼익용상가,미트문양중
화정동	9.4	9400만	2695만	3층/금호월드
매곡동	48.9	2억6000만	7460만	2층/도로변,병,의원,학원적합
산창동	29.8	1억5700만	7000만	6층/프랜클타운,학원,병원적합

▶근린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기동	62/136	4억7000만	3억2900만	3층/세무실,음식점,주택,대표변
월산동	76/95	3억2100만	2억2470만	3층/상가,주택,무진중인근
송정동	69/58	2억	1억4100만	단층/상가,주택,동사무소인근
주월동	43/42	2억3830만	1억6677만	2층/구대동고인,부동상가,주택
나주금천면	344/164	4억4180만	1억9800만	3층/소매점,주택

▶다가구(원룸)/숙박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지산동	74/99	2억8400만	1억8482만	15가구/법원인근
중흥동	85/123	4억5760만	3억2034만	18가구/광주역인근
학동	89/138	5억2300만	3억6600만	18가구/학동3구역
광천동	91/221	5억3370만	3억7360만	20가구/재개발지역
남평읍	832/626	15억4000만	4억4170만	4층/객실52,드물김유일지인근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장성심서면	848/41	1억2000만	6760만	전원주택
쌍촌동	51/63	1억7800만	1억2460만	2층,역세권주변
중흥동	39/47	8680만	4860만	2층,중흥천주교인근
중흥동	48/53	1억1920만	6880만	2층,평화시장인근
신기동	70/97	1억8950만	1억6100만	2층,신기초교인근
동명동	24/29	8770만	4920만	2층,동명교회인근
용봉동	39/47	8780만	6150만	2층,유창파크인근
본촌동	89/35	8820만	4940만	단층,광신대인근
월산동	44/38	8150만	4565만	단층,월산2구역내
중흥동	42/48	9520만	5330만	2층,효동초인근
장성읍	60/32	5000만	2810만	단층,장성공원인근
백운동	103/64	3억3220만	1억8610만	벽산@인근,고급주택
두암동	43/50	9650만	6760만	2층,홈플러스인근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광덕리	17.8	3000만	2100만	대형연립,2층
풍향동	57.07	1억6000만	8960만	대주빌라,1층
월산동	13.1	2400만	1680만	광산연립주택,2층
방림동	14.8	4000만	2240만	송림맨션,3층
나주삼영동	18	2400만	1680만	삼영연립주택,1층
곡성옥과면	19.7	7000만	4980만	아이비빌,1층
중흥동	18.2	4300만	3010만	해광맨션,3층

▶오피스텔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안동	6.6	2450만	1372만	제일,12층
치평동	54	4억2000만	2억3520만	로잔타움파크,4층
수기동	9.1	4300만	1541만	제일,13층
치평동	11.6	7500만	3360만	구영드림빌,4층
월산동	13.7	8600만	3090만	동강,8층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문흥동	금호	5층	42	1억7600만	1억2320만
금호동	한국	14층	24	9000만	6300만
월계동	금호	15층	34	1억500만	7350만
용봉동	대신	8층	32	7500만	5250만
일곡동	삼호	2층	37	1억3800만	9660만
화순읍	대광그린	14층	24	4000만	2800만
내방동	해태	2층	32	1억1000만	7700만
우산동	동산	6층	24	5100만	3570만
문흥동	우산주공	15층	24	5500만	3850만
봉선동	무등2차	23층	32	9800만	6860만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대지	379	7억4120만	5억1890만	현대@인근
곡성옥과면	답	692	2516만	1761만	율사마을인근
나주공산면	답	473	1437만	1000만	독와실마을인근
장성황룡면	답	447	1623만	1137만	대판아마을인근
영광백수읍	전	961	2850만	2000만	중촌마을인근
영광읍	전	609	1812만	1270만	구평마을인근
나주남내동	대지	44	3460만	2430만	나주여중인근
나주평산동	답	731	3623만	2030만	화산마을인근
장성읍	답	713	3355만	1500만	덕진촌마을인근
장성북일면	답	720	2712만	1900만	궁평마을인근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수동	155/136	3억2400만	2억2680만	소촌공단인근
화순동면	1248/641	7억766만	3억1700만	동면농공단지내
용동	294/206	4억4000만	2억4660만	평동공단내
장성북일면	1990/669	14억6620만	5억5680만	갑동마을인근
용동	634/185	11억5000만	5억1560만	매일유업인근

풍암동 대539/건1309 감정가52억 최저가36억 사우나,헬스,마트
소촌동 대802/건1387 감정가65억 최저가45억 사우나,찜질방
용동 대503/건412 감정가9억6800만 최저가6억7760만 공장/평동공단내
지석동 대151/건213 감정가5억540만 최저가2억8300만 병,의원적합,대로변
치평동 전용면적54 감정가4억2000만 최저가2억3520만 로잔타움,4층
월산동 대118/건295 매매가4억7000만 교통편리,대로변 병원,요양원적합